
		보 도 자 료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인천광역시		
		배포일자	2021년 3월 31일(수) 총 8매			
담당 부서	시립박물관	담 당 자	• 전시교육부장 배성수 ☎440-6731 • 담당자 김성이 ☎440-6733			
사 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회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시상식”

- 인천시립박물관 개관 75주년 기념식과 함께 열려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박물관 초대관장이자 국내 미술평론가 1세대인 석남 이경성 선생(1919~2009)의 업적을 기리는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시상식을 인천시립박물관 개관 75주년 기념일인 4월 1일 오전 10시 30분 박물관 로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은 이경성 선생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여 시작된 석남 미술상(1981~2006)과 석남 미술이론상(2006~2008)의 뒤를 이어 선생 타계 후 후학들의 자발적인 발의로 제정된 상으로,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운영위원회에서는 한국 미술이론의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 평론가, 미술행정가 등에게 이 상을 수여하고 있다.

조은정 미술평론가가 처음 수상한 이래 2020년까지 총 7회의 시상식이

열렸으며 작년부터 석남 이경성 선생의 고향이자 초대관장을 지낸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시상식이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에 전은자 이중섭미술관 학예연구사와 특별상에 박래경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수상자에게는 부상으로 작가 정직성과 김홍식의 작품이 수여된다.

전은자 학예연구사는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학과를 졸업하고 제주 지역의 미술가를 연구하는 한편 이중섭 연구를 지속해 왔다. 특히 일본인인 이중섭의 아내와의 소통을 위해 통역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이중섭미술관의 발전을 이끌었다.

운영위원회측은 “이중섭미술관에서 오랫동안 재직하면서 이중섭 연구에 최선을 다해왔고 유족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중섭의 작품 기증을 이끌어내는 등 이중섭미술관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기여했다”라고 전은자 학예연구사를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를 밝혔다.

특별상을 수상한 박래경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은 서울대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서독초청 장학생에 합격하여 뮌헨에서 미술사를 연구하였다. 이후 국립현대미술관이 과천으로 이전할 때 학예연구관으로 합류하였으며 이 시기 국립현대미술관장인 이경성 선생을 보좌하여 국립현대미술관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운영위원회측은 “큐레이터라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정착하지 못했던

시기에 불모지를 개척하였고 국립현대미술관 역사상 최초의 여성 학예 실장이 되었다.” 라고 특별상 선정 이유를 밝혔다.

석남 이경성 선생은 인천 화평동에서 태어나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박물관인 인천시립박물관장으로 부임하여 박물관의 기틀을 세우는데 힘썼으며 국립현대미술관장을 두 차례 역임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미술비평의 개척자로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한편 신진 작가를 위한 석남미술상을 시상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쓰는 등 한국 근현대 미술문화 발전에 큰 획을 그었다.

유동현 인천시립박물관장은 “국내 최고 권위의 미술이론가상인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의 지속적인 개최를 통해 인천이 문화도시로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문의전화 ☎440-6733)

<붙임> 참고자료

<붙임> 제8회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관련 참고 자료

제8회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수상자

- 제 8회 수상자 : 전은자 (이중섭미술관 학예연구사)
- 특별상 수상자 : 박래경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제정 경위

석남(石南) 이경성(李慶成, 1919-2009) 선생은 1919년 인천 화평동에서 태어나 동경 와세다 대학에서 법학과 미술사를 수학하였다. 그는 1945년 해방 직후 한국 최초의 공립박물관인 인천시립박물관의 개관을 시작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의 개관,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의 개관, 홍익대학교 미학미술사학과 의 개설, 국립현대미술관의 개관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미술행정가이자 교육자였다. 또한 그는 한국 근대미술사를 처음으로 서술하기 시작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한국 근대미술사의 불모지 속에서 수많은 논문과 작가론을 쏟아낸 미술사가이자 평론가였다. 무엇보다도 이경성은 미술에 대한 이해가 적박했던 시대 상황 속에서 때로는 현실에 강력하게 대결하고, 때로는 현실을 널리 포용하며, 한 시대 미술문화를 개척한 인물이다.

그는 1989년 생존시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여 석남미술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석남미술이론상을 제정·운영한 바 있다. 그러나 그의 사후 이러한 전통이 이어지지 못함을 아쉬워한 후학들이 석남 선생의 뜻을 기리고 이어받는 동시에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는 한국의 미술이론가를 격려하고 존경하는 취지를 되살리고자 하였다. 이에 후학들의 자발적인 발의에 의해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이 제정되었다.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운영 규정

-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은 한국 미술이론의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 평론가, 미술행정부 등에 수여된다. 상금을 대신하여 작품을 수여하며, 작가 김홍식과 정직성의 작품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 수상자는 석남미술이론상 운영위원회가 각자 후보를 추천하고 이를 토론에 붙여 운영위원의 만장일치에 의해 선정되며, 운영위원간 의견이 다를 경우 수차례의 조정과 협의를 거치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않을 때는 당해 수상자를 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운영위원회는 선정위원을 겸하며,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임기를 두지 않는다. 다만 운영위원은 이 상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 2021년 제8회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수상자 : 전은자



수상자인 이중섭미술관 전은자 학예연구사는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학과를 졸업했다. 수상자는 일찍이 제주대학교 박물관 연구원, 탐라문화연구소 연구원을 역임하면서 제주 지역의 미술가를 연구하는 한편 이중섭 연구를 지속해 왔다. 사학과 박사과정을 밟은 것은 현대사 속에서 난민 화가인 이중섭과 시대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또한 통역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것도 이중섭의 아내인 일본인이고 아들은 일본에서 자라난 점을 고려하여 이중섭 유족과의 소통을 위한 목적이었다.

이러한 집념의 과정을 거쳐 2007년부터 이중섭미술관 학예연구사로 근무를 시작해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수상자는 지역 미술관의 빈곤한 예산과 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재직하면서 이중섭미술관의 발전을 이끌어 온

바 있다. 이중섭전시관이 2003년 이중섭미술관으로 거듭났지만 그 소장품의 대부분은 이중섭 작품이 아니라 이중섭 주변인의 작품이었다. 수상자가 근무를 시작했을 당시 이중섭 작품은 소품 9점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중섭미술관에 이중섭이 없다는 속설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중섭 작품 수집을 필생의 목표로 세우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21년 현재 47점을 소장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또한 전은자는 2015년부터 전문연구자와 함께 이중섭 카달로그레조네 프로젝트에 상임연구원으로 참여하여 2018년까지 이중섭 전작 조사를 완결 짓는 연구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논문 ‘이중섭의 서귀포시대 연구’를 비롯하여 제주미술과 제주미술인에 관한 다양한 연구에도 주력하였다. 그 성과를 엮어 <<제주바다를 건넌 예술가들>>, <<제주 표착과 제주인의 표류>>와 같은 저서를 간행했다.

우리 운영위원회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장기간 열정어린 헌신성으로 이중섭미술관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기여 해 온 전은자 학예연구사에게 금번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을 시상할 수 있음을 크게 기쁘게 생각한다.

■ 2021년 제8회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특별상 수상자 : 박래경



박래경은 1935년 대구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미술’에 열망을 가졌으나, 부친의 권유로 역사학을 공부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문리대에 입학한다. 그러나 차마 ‘미술’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못하고, “서독정부 초청 장학금” 선발 시험에 당당히 합격, ‘미술사’를 공부하기 위해 독일 뮌헨으로 떠난다.

1957년부터 1962년까지 독일에서 체류하면서, 당시 한국인에게서는 너무나도 드문 기회였던, 정통 독일 미술사를 공부할 계기를 마련한다. 그의 지도교수는 유명한 한스 제들마이어 (Hans Sedlmayr). <중심의 상실>을 써서 서양미술사 학계에 독보적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이다. 박래경은 독일에서 한 살 많은 전혜린의 친구이기도 했다.

이후 1962년, 독일에서 만난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귀국, 1963년부터 1985년까지 서울대, 수도여자사범대학 등에서 강의했다. 이 시기 많은 번역서와 논문을 썼다. <미술사 시대양식의 다원성>, <비플린과 미술사의 기초개념>, <단일양식과 복수양식론> 등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이가 별로 없었을, 독일 미학을 소개하는 선구적 역할을 담당했다.

박래경의 사회적 공헌으로는, 1986년부터 1996년까지 약 10년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근무한 이력을 들 수 있다. 덕수궁의 석조전 건물을 쓰고 있던 국립현대미술관이 1986년 거대한 건물을 지어 과천으로 이전될 때, 박래경은 학예연구관으로 합류하게 된다. 그 후 박래경은 국립현대미술관 역사상 ‘최초의 여성 학예실장’이 되었다.

특히 국립 ‘현대’ 미술관이기를 표방하며,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향해, 그리고 동시대 세계와 호흡하기를 바랐던 이경성 관장의 뜻에 따라, 1986~92년 이경성 관장 재직기간 동안 박래경은 그를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독일 전문이라는 이점을 심분 활용하여, 1987년 <독일현대조각전>, 1988년 <아르테 포베라>전, 1989년 <독일현대회화전>, <바우하우스>전 등을 추진했다. 현재 과천 야외에 있는 몇몇 유럽 조각가의 작품 설치도 박래경의 주도 하에 가능했다.

1996년 정년퇴직 후에는 프리랜서 큐레이터로 활동하며, <한국 해학의 현대적 변용>(1998), <한국미술연구 99프로젝트>(1999), <태극-순환 반전의 고리>(2010) 등의 전시를 기획했다. 2007년 한국큐레이터협회 초대 회장으로 선임되었으며, 2009년부터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의 후원회 활동, 2012년부터 이인성아트센터 회장 등을 역임했다.

박래경은 ‘큐레이터’라는 직업이 전혀 사회적으로 정착되지 못했던 시기, 많은 악조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선배 큐레이터’로 기억될 것이다. 석남 이경성 선생이 그러했던 것처럼, 불모지를 개척해야 하는 험난한 여정 속에서도, 언제나 따뜻했고, 후배를 격려했고, 지혜로운 삶을 사셨던 박래경 선생에게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 특별상’을 바치고자 한다.

제8회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수상자 부상

■ 2021년 제8회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부상 : 정직성 작가 기증 작품



정직성, 211911,
acrylic and oil on canvas, 80×100(cm), 2019

■ 2021년 제8회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특별상 부상 : 김홍식 작가 기증 작품



김홍식, Dialogue in Museum,
Painted Ink & Silkscreen on Embossed
Stainless steel,
55x55cm(65x65cm framed), 2017-18


석남미술이론가상 역대수상자

- 2014년: 1회 수상자 조은정(한국근대미술학회 회장, 미술평론가)
- 2015년: 2회 수상자 최은주(대구미술관 관장)
- 2016년: 3회 수상자 이미나(일본 가나가와 현립근대미술관 주임학예연구원)
- 2017년: 4회 수상자 김복기(아트인컬처대표, 경기대부교수)
- 2018년: 5회 수상자 김영순(전부산시립미술관 관장)
- 2019년: 6회 수상자 김현숙(미술사가, KISO미술연구소장)
- 2019년: 6회 특별상 김홍남(전국립중앙박물관장)
- 2020년: 7회 수상자 이지은(국립현대미술관 아키비스트)
- 2020년: 7회 특별상 김철효(안상철미술관장)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온라인 초대장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시상식

INVITATION
2021.04.01(목)
AM 10:30



im

초대의 말씀

칙박한 미술 현장에서 근현대 미술의 발전을 위해 정성을 바친
석남 이경성 선생님의 뜻을 기리고자 후학들의 자발적인 발의에 따라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을 제정하였고 올해로 8회의 시상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8회 수상자는 전문자님, 특별상 수상자는 박재경님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석남 이경성 선생님과 인연이 깊은 남양주 모란미술관에서 이루어진
시상식은 작년부터 석남 이경성 선생님의 고향이자 초대 관장을 자라셨던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시상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은 한국미술이론의 발전과 미술 현장에서의
업적이 현저한 기획자 및 연구자에게 존경과 격려의 마음을 담아 수여하는
상입니다.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을 모시고자 하오니 부디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운영위원회 · 인천시립박물관

일시 : 2021년 4월 1일 (목) 10:30
장소 : 인천시립박물관 1층 로비
주최 : 석남 이경성을 기리는 미술이론가상 운영위원회
주관 : 인천시립박물관

제8회 수상자 : 전문자(이충섭미술관 학예연구원)
부 상 : 정직성 작가 기증 작품
제8회 특별상 : 박재경(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부 상 : 김홍식 작가 기증 작품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상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im 인천광역시립박물관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